



"1월 캠프를 통해 241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팀은 1월에 세번의 캠프를 통해서 총 241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에 58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라는 헌신의 메시지를 통해 69명의 캠퍼들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익숙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코 캠프를 통해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번째 캠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 순간 제 마음에 진짜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을 저의 오직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 은혜가 제 주변으로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 캠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청년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예전 교회에서는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도 정말 오기 싫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고요. 그런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 캠퍼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청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고 초청했습니다. 총 20 명이 수업에 참여했는데 8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음 강의를 듣기 전에 저의 전도 방식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두 마디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7년 동안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항상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의심이 들고 질문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나의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복음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앞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1월 사역에 기도로 또는 후원과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덕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2.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기도와 재정 후원자를 보내 주시도록
(매월 3만 원씩 후원해 주실 65명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1월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35명이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 올해 우리 팀을 통해 5,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국 청소년 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